

2020 새 설계

김철우 보성군수

“굵직한 SOC사업 대거 추진...보성, 새롭게 태어나는 해”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2020년, 보성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새해를 맞아 “우리군은 사상 최대 규모로 80개 사업에 3000억원가량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이 사업들은 수백억 원대의 굵직한 사업으로 보성군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해양레저관광사업 480억원, 어촌뉴딜 300 사업 141억원, 생활 SOC 복합화 사업 700억원, 하수도 정비사업 945억원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경전선과 남해안 고속철(KTX) 등 다양한 SOC 사업이 추진되면서 서울에서 보성까지 2시간 30분, 부산에서 보성까지는 2시간대 주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군수는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의 목표는 철도 전철화 사업으로 구체화하며 남해안 해양 관광 거점을 넘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과 함께 인구 유

어촌뉴딜 등 지역발전 이끌 사업 추진

고속도 특화작목으로 역대부농 육성

특량만~여자만 해양관광벨트 조성

입, 관광, 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문화 여건 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민 복지 정책에 대해 김 군수는 “복지기동대·보성 행복지킴이단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송파 세 모녀 같은 비정한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서로 지키는 인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모두를 위한 의료 복지도 확대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내려가는 등 대상자를 확대한다. 영유아를 위한 로타바이러스 접종, 밝은 세상을 선물하는 백

내장 수술비 지원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의 가치를 세우고 부자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김 군수는 “역대 부농을 키우고 힘이 있는 농업 환경을 위해 특화 작목의 내실화와 함께 과수 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고속도 과수 작목을 위한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올벼 쌀, 향토 사업,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등도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또 “별교 꼬막 자원 회복·복합사업, 특량만~여자만 바다목장 조성, 수산 중요 방류사업을 통해 수산자원 증강에 힘쓰겠다”며 “어촌뉴딜 사업으로 어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10년 연속 가축 질병 없는 ‘정정 보성 축산’의 명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돕고,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연 친화적인 축산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관광정책으로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2020년 주요 사업은

- ▲보성형 블루이코노미 실현
- ▲복지기동대·보성 행복지킴이단 확대 운영
- ▲특화 작목 내실화,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
- ▲부자 농어촌 만들기 정책 추진
- ▲별교 꼬막 자원 회복·복합사업, 수산 중요 방류사업
- ▲특량만에서부터 여자만까지 보성 해양관광벨트 조성

여자만 별교 갯벌 해양테마공원 조성, 특량만에서부터 여자만까지 보성 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현장 군수실을 운영해 직접 군민과 만나고,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다”고 다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 설 맞아 모든 품목 10% 할인 이달말까지

보성군은 설을 앞두고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 (사진)의 전품목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성물은 보성군의 위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에서 관리하는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이다.

2017년 오픈해 보성의 맛과 멋과 향이 담긴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93개 업체, 650여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할인행사에서는 최대 15%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회원은 5000원 적립금이 지급되고, 모든 회원에게는 5% 구매적립금이 지급된다. 상품후기나 댓글 작성 시에는 1000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보성물에서는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자랑하는



녹차와 차 연관제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11년 연속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을 비롯해 보성키위, 별교꼬막 등 농어가의 정성을 듬뿍 담은 풍성한 선물세트를 만날 수 있

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성물’을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녹차수도 보성의 농특산물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 저소득 140가구에 난방유 전달

보성군은 보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9일 동절기 주거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140가구에 난방유를 전달했다. (사진)

이번 나눔 사업은 보성군 ‘하루 100원의 행복’ 사업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 계좌에 모아진 기부금 4200만 원을 사용해 지역 나눔 복지의 의미를 더했다.

임모보 보성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나눔은 군민

들이 모은 기부금이 소외된 군민에게 돌아가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루 100원의 행복’을 통해 더 따뜻한 보성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2011년 3월부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일시 및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하루 100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축산농가 500곳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한다



보성군, 5년간 30여억원 투입

보성군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농장단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스템(사진)을 구축한다.

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총사업비 30여억원을 투입, 축산시설과 축산농가 500여개소 농장입구에 축산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15일부터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해 50여개소에 차량 소독기 설치를 지원하고 2021년부터 사업량을 늘려갈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군은 지난해에도 가축 사육 농가는 물론 가축 분뇨 처리, 퇴비 생산 시설까지 총 50여 개소에 차량 소독 시설을 지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예방만이 최선”이라며 “농장단위의 철통방역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 보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80년 넘게 구제역 발생 이력이 없는 보성군은 2012년 이후 고병원성 A/D 발생하지 않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없었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